아침 초대석

광주시립미술관에 작품 80점 기증 한국화가 석성 김형수 화백

"전통 회화 소중함 일깨워 주고 싶었다"

"일본과 중국은 전통 예술을 우대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것만 좇다보니 한국화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립미술관에 자신의 작품 80점을 기증한 석성(碩星) 김형수(80) 화백의 첫 마디는 우리 것의 소중함에 대한 강조였다. 전통 회화의 관심보다는 서구 화풍만을 따르는 풍토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선뜻 내놨다는 것이다.

우리것 홀대 '예향' 광주 위상 떨어뜨려

그는 "우리 것에 대한 무지와 홀대가 예향 광주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면서 "새로운 것은 전통 회화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용시킬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화가들이 작품 기증 조건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 건립이나 특별 전시실 마련 등을 요구하는 요즘에 아무 조건 없이 작품을 기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이번에 기증한 작품은 한국화 50점과 소묘 30여점이며, 195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창작됐다.

이들 작품은 그동안 팔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분신처럼 아끼며 내놓지 않았었다. 자신의 예술 혼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기에 평생 보관하고 싶었다.

그는 "그림만 생각하며 살았고, 눈 뜨자마자 붓부터 들었다"면서 "20여년 전에는 미술관을 하나 지을까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이마저도 후배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 관뒀다"고 말했다.

자신의 미술관이 생기면, 관리하는데 시간을 빼앗기고 후배들에게 자신의 화풍을 강요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술대학을 수학하지는 않았지만 한국화의 대가 심산 노수현,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 동강 정운면 등을 스승으로 모셨다.

하지만 이들의 정신과 기법을 익히기는 했지만 화풍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그가 붓을 든지 25년 만인 1968년에야 첫 개인전(광주 아카데미다방)을 열었던 것도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였다. 그림만 보고도 누구의 제자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예술의 복제'가 싫어서였다.

젊은 작가들에 대한 따뜻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요즘 작가들은 스케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사진 속에는 현장의 감동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스케치를 한 뒤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만의 색깔' 중요 … 25년만에 개인전 열기도

또 "자연을 정확하게 보고, 모든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힘은 스케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남에서 태어난 그는 지난 1981년 현대한국화협회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고 1983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현대미술초대전', 88년 서울올림픽 기념 '한국현대미술전' 등 굵직굵직한 전시회에 작품을 선보였다.

한편 그의 기증작품은 11월29일까지 계속되는 '2009 올해의 작가-김형수'전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상옥 남화토건 회장 기적비 제막식

최상옥 남화토건 회장의 업적을 기리는 기적비 제막식이 7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서석중·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렸다. 이날 제막식에는 각 기관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재광 해남군향우회 체육대회

재광 해남군향우회(회장 유경식)는 8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제12회 재광해남군 향우가족 체육대회를 열고 향우간 화합과 고향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재광 해남군향우회 제공〉

광주 수피아여중 100년… 본관 신축 준공식

100년 전통의 역사를 지닌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가 9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양림동 교내 강당에서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준공식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본관 건물은 연면적 3천540㎡에 5층 규모(교실 32칸)로 지어졌으며, 광주지역 사립학교 중에선 최초로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공사비 40억원을 전액 지원받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갑길 광산구청장 문인 됐다

'꿈속에서…' 수필 기고 현대문학신인상 수상

전갑길 광산구청장이 등단 작가가 돼 화제다. 문학잡지 현대문학은 제49회 현대문예 신인문학상 수상자로 전갑길 광산구청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갑길 구청장은 '꿈속에서 깨어나 희망찾기'라는 제목으로 서정수필을 기고했다.

전 구청장은 자신이 기고한 수필에서 '세상은 윤택해졌지만 더 건조해지고 사나와졌다'면서 '차가운 이성만이 솟구고 포근한 감성은 메말라 가는 것'을 각박한 세상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어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희망으로 세상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현대문학은 2009 구시월호 52호에서 '소년시절의 회상을 통해 성인이 된 오늘의 우리 사회를 비춰보는 수필에서 작가의 진정한 서정적 유로(流露)를 봤다'며 '문학의 자아가 개체에 머물 수 없고 필연적으로 사회적 자아로 확대되어 역사의 벌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우리 서정수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평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폐기물 처리 설비업 미래 밝아 생각 바꾸면 다시 자원화 가능"

광주 온 환경 세계 최고 기업 日 오카도라社 카나이 대표

"인류가 존속하는 한 인간은 자원을 쓰고 난 폐기물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 없습니다."

'2009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열린 지난 6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만난 오카도라(Okadora) 대표 마사오 카나이(Masao Kanai·65)씨는 "폐기물 처리 설비업의 미래는 밝다" 며 이 같이 말했다. 오카도라는 산업·생활 폐기물 처리설비업 분야에서 '고효율, 신뢰경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카나이씨는 "자원 개발과 재화 생산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류의 관심도 그에 못지 않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43년간 회사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뢰'"라며 "오카도라는 돈이 되더라도 약속을 어기는 기업, 고객에게는 설비를 판매하지 않는다"며 회사 경영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카나이씨는 폐기물 처리 설비업의 발전방향과 세계적 추세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대부분의 폐기물은 또 다시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오카도라는 이미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에탄올과 사료로, 일반 쓰레기를 기름으로 바꿀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교총 교권옹호위원회 구성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송길화)가 '교권옹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근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 교육위원, 변호사 등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송길화 광주교총 회장은 "교권침해 사고 발생 시 지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출동하겠다"며 "교총의 존재이유가 교권보호에 있는 만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물가 글쓰기 공모 김유정 양 최우수

광주시가 주최한 '물가야! 나랑 놀자' 주제 글쓰기·포스터 공모대회에서 김유정(서광초 2·사진)양의 '쿠폰 바꿔 주세요'가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글쓰기=최우수상 김유정, 우수상 장익준(본량초 5)· 김진홍(효동초 5), 장려상 김세희(운천초 3)·양어진(풍암초 5).

▲포스터=최우수작 송연주(풍암초 3), 우수작 송승민(송원초 3)·이승연(운천초 3)·강소연(효동초 3) 장려상 박현식(서광초 5)·기시현(고실초 2). 시상식은 12일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 동구 독거노인-대학생 1,004쌍 결연

일촌 결연을 통해 가족의 정을 나누는 독거노인과 대학생이 1천쌍을 넘어섰다.

8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독거노인에게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대학생에게는 경로사상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일촌결연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1천4명의 노인과 대학생이 가족의 연을 맺었다.

2006년 첫해 300쌍이 결연을 맺은 뒤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 아래 2007년 300쌍, 2008년 200쌍, 2009년 204쌍이 일촌 결연을 맺어 1천4쌍이 일촌 결연을 맺은 것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현광의·김정숙씨 장남 지영군 신양수(광주일보 총무부)·박영님씨 장녀 혜선양=14일(토) 오전 11시 10분 광주 꿈의궁전웨딩홀 2층(다이아몬드홀)

▲김운영·신명숙씨 장남 우일군 황이두(광주시 남구 총무국장)·김숙씨 차녀 보연양=14일(토) 오후 1시10분 프라도호텔 2층.

▲남기화·정형덕씨 장남 훈현군 홍송기·김영순씨 장녀 석희양=15일(일) 낮 12시40분 에벌루션웨딩컨벤션 2층(라벤더홀)

▲김관수·윤명순씨 차남 차겸군 정환성(광주시 남구 주민생활지원국장)·권순남씨 장녀 진양=15일(일) 오후 2시30분 서울GS타워 1층(아모리스홀)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 9회 동창회(회장 김영석) 월례회=9일(월) 오후 6시 해태식당. 062-525-7393.

▲순천고 칠광회(회장 김문기) 모임=9일(월) 오후 6시 학동 전복사랑. 062-232-3339.

▲광주인성고 3회(회장 장선현)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장 오병준)=14일(토) 오후 6시 광주 상무지구 예술의 전당. 011-609-0198.

향우회

▲광산구행정동우회(회장 조동희)추계총회=9일(월) 오전 8시30분 광산구 보건소 앞 집결. 경남 합천해인사. 011-628-7120.

종친회

▲한국범최씨 대종연합회(회장 최기후) 월례회=11일(수)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진도횟집. 062-236-3220.

▲나주임씨 나주청장년회 정기 월례회(회장 임영택)=12일(목) 오후 7시 영산포 우체국앞 다복가든. 010-2613-8076.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피곤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붓는 발 등.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탑정형외과 옆 베네슈. 062-266-6657.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모집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토요문화교실-우리나무 바로알기' 체험학습 참가자 모집=14일(토) 오전 10~12시 중외공원 일대 전통수목과 야생화 현장체험, 초등 1~6학년 40명 접수순 마감, 참가비 5천원. 062-521-9041.

▲섹스폰 교육회원 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신입생 모집=23일~12월2일 오후 5시까지. 남자 48명·여자 48명 광주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062-520-4363.

▲진월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GS 피부미용, 네일아트 학원 교육생 모집=피부 국가자격증반,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등 자격증반·취업반·강사반 등 모집, 서구 쌍촌동 5·18문화센터 맞은편. 062-381-5051.

▲풋골프 동호회원 및 친선경기=발로 볼을 차 홀에 넣는 풋골프 회원 모집,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골프장. 010-4604-4608.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실 분 모집=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급구함,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파출소 부근. 062-671-3693.

부음

▲윤정술씨 별세 선도·미라씨 부친상=발인 10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김순원씨 남영희·규희·광희·수희·경희·승희·숙희씨 모친상=발인 10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박옥자씨 별세 김원화·범택·연희·미옥·현옥·미라씨 모친상=발인 10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은문화씨 별세 이영일(전 국회의원)·영삼·영욱씨 모친상=발인 9일(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02-2258-5940.

▲안홍남씨 별세 윤정석·석귀·안숙·정순·정임씨 모친상=발인 9일(월)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강대윤씨 별세 정남태·달태·대만·남순·남례씨 모친상=발인 9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강춘자씨 별세 송기형·기학·기근·형자·선자·선숙씨 모친상=발인 9일(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김종철씨 별세 성규·성일·성관·성완·승안씨 부친상=발인 9일(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이강수씨 별세 건웅·건민·장혁씨 부친상=발인 9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